

고할 反비할 조심할 직한 삼가할 (戒). 가리침 인도할 정계할 뜻임너울 (訓). 본바들 가르침 준
 가르침 법령(敎). 정계할 계엄할 새다를 (條). 그렇의 발릴(規). 그칠 머물음 고요할 실 살 레찰
 거동. (止). 첫 관의 바를 갖당할 당할 뜻수한 스변할 질덜할 미리당할(正). 향오 뜻개리 단말 멩
 질 거를 잘 길 쓸 행실(行). 삼질 공경할 오로지 칭송스리울 고요할 생각할 삼가라할(謹慎), 엄습
 할 정동할 공경할 삼가할(敬). 공순할 엄습할 공경할 맞들(恭). 미들 맞뵈 형칭 마줄 칭할 부랍
 (信). 미뵈 공경할 살핀 칭칭(誠). 당할 금한 못하게한(禁). 하고저할 일할 하소연 바랄 불위할 생
 각할(願). 착할 만허조울 조와할 율케여질(禮). 빌 살 신복(祝). 참 진실할 신검시리울 칭할 바를
 화질 칭용(眞). 가질 잡을(持). 가락 가른칠 뜻(指). 어질 착할 시(仁). 고를 부드리를 가락 계교
 할(訓). 증거 중험할 중할 맞출 시련할(驗). 모 도질 방위 뜻수할 전술 어울러 매르 방법 방서
 책(方). 간 굴 오질 자주 주장할 돌(幹). 배물 실 더할 병글거릴 제(制) 치할 응길 색스침 미칠 중
 펴 유해 공포(施). 참을 강인할 참아못할(開避의意로) 헤아릴(忍) 忍). 가릴 칭할 세밀할 천일
 할 청신 칭고 밝을 의술할(精). 편할 다들 의길 맞당할 맛가줄 말변수할 위마칠 문득 필리할 것
 가을 곳 순할(便). 힘 힘쓸 부지런할(力). 순기 료수할 총명할 밝을 술기모을 령리할 시슨을 독수
 할(智慧). 날넛 날새르 유양할 힘쓸 부지런할(勇). 나들 난을 쓰개르 본별할 난호야줄 분수 죄분 목
 및(分). 구할 살핀 모디르 의지로일 언약할 중요모을 하고자할(要).

◎權相老師는一光(一號八上) 『止는戒요』함을參照. 또日語로「オチテ」로譯할것보다ワケ々々「라譯할것이마칠
 가함. ◎以上の意味를綜合하여觀察하고識別할普通의概念을作코지하여는갈유머리譯하였습니다.
 그리고律(舊一毘尼) (新一毘奈耶) (優婆塞義) 이라는語義와概念이다른것은 勿論本質에들어律은絶對他律
 的으로固定的律條로서 止善을形式的으로強要하고 修行者를積極的으로制律하는데反하여 戒는自發的으로一カト

儀 一切善法等을各已自身이攝修覺醒하여 一切衆生有情을攝益하게하려는利他的修行이며 또한兩者의起原이르
 律의起處는 不邪淫戒善佛成道後十二年度에制定하였다는대對하여 戒의起原은佛陀의初轉法輪인法門八正道에
 서出發하였스며 同時에三學의定慧도 이正見正思惟正語正業正命正精進正念正定の八正道에出發한것이故로 律보
 다도戒의起原이던것이라함이다. 그리하고八正道와戒定慧解脫等으로總括하여질 修行道の大綱과結合하여重大
 한意義의變遷을바른經路외지않키며엇슴이다. 참으로우리들은氏(宇非伯)의研究에잇는바와가치 人間の眞實(人
 間の歩むべき道)이라함의八正道가, 俗團生活의固定에다라如何히本來의普通性을 일어켜왔는가를經典新古의說을
 다라차키낼수가잇슴이다.

註(2)宇非博士印度哲學研究第三、(四〇頁)「八聖道の原意及其變遷」參照.

(3)前引書(四四頁)參照.

(4)和辻氏原始佛敎의實踐哲學(四〇四頁)에宇非氏研究에對한同感을敍術하였슴을參照.

이어나는八正道의各支에對한 說明을論코지하는것보다 佛陀의달마(達摩)法(法)인八正道가 戒定慧의敎理를包含
 하고잇스며 그의宗敎의思想의展開가 다一八道를基礎로하고成立되었슴을뜻주려하오며 同時에修行道의
 大綱이戒를基本삼아定에 定으로못허慧에 慧로못허解脫을得케하는觀察과 慧에서定으로 定에서戒에이르러宗敎
 의生涯를體驗하려는 佛陀의正意派의主見으로서三學의한인戒善解脫코지함이다.

註(5)金泰洽氏所論論金剛杵第十五號(戊辰一月發刊)六頁下에「大恩教主釋尊의人格과그의宗敎에就하여」라는가운

데에『佛敎의行門을따라서宗派가만오나 大體로分할것트면禪敎律念佛四宗으로分하게되니 이것은반드시
 八正道로부러分割된것이다. 正語正業正命은律宗이되고 正念은念佛宗이되고正定은禪宗이되고正見正思惟는
 敎宗이되었다. 故로此等八正道는佛敎의根本思想인同時에 佛敎를建立한佛陀宗敎의敎理라하것이다』.

高楠博士現代佛敎第五十四號(戊辰十月發刊)五一六頁에『組織體としての佛敎』論中에는 八正道와五種佛

는 一大分水嶺을 作하여 (안가라도 안이 갈수 없다) 金剛體로 作成된 細流가 되야 마지막 (究竟) 에는 그 細流의 極大인 大海에 注入하는 것일뿐이다. 또한 그 佛性의 最大覺位의 佛陀의 本性인 것은 마치 一分子의 物이라는 屬性이 大海水全體에 充滿한 共通의 屬性을 作함과 같을 것입니다. 이 戒體의 作用을 古來의 宗祖들은 然、解脫이라고 命名한 것은 가장 適合히도 宗教인 本質이라는 意味下에서 戒體라는 意味를 如實히 說明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意味로서 吾人은 受戒한 後에 特戒破戒를 勿論하고 個々히 菩薩의 戒體를 具足케 할 것이라 하며 이 意味에서 「갈음매」 라 이르고 싶은 意입니다. 또한 眞理라 것은 眞이요 (佛敎의 立場에서) 無常일 것이며 無我임을 基本삼을 것이요 「지여진 것」 「그는 絶對가 안인」 「必要에 依하여 修正되 것」 「生活의 方便으로 其價値를 加할 것」 「狀位에 따라 다를 것」 「임으로 如來의 所制法이라 할 것」이라 하는 戒法의 意味에서 眞理를 選擇敎示한 뜻으로 「갈음매」 라 이르고 싶은 意입니다.

宇宙의 現象이며 이 容觀界를 觀察하고 實驗하며 實證하는 主觀의 理法일 지라도 無常、無我임으로 差別現象에 依하여 無限의 法則 (原理)을 絶對唯一性으로 力說하는 意도 잇스나 그는 有我思想이며 無限數로 나 또는 空으로 나 有로 나 前提할 것보다도 吾人의 認識對象과 主觀의 認識할 便利시 리운 自由自在의 遊戲된 處所에서 立脚코 치함이다. 이 顯現한 戒相 (前參照) 이라는 意義에서 도 「갈음매」 라 이르고 싶은 意입니다. 그 戒相인 法則을 吾人은 身口意三業으로 受持 勅作하며 遵守奉行하는 戒行의 意味로서 도 「갈음매」 하려 간다는 意로서 「갈음매」 라 하고 可 할 意입니다.

以上の 論陳한 것을 吾人이 이 갈음매로서 自己와 社會大衆에 對하여 觀察할 때에 갈음매는 個性의 修行으로 自我를 同然케 하는 同時에 社會에 對한 社會我 (利他主義) 를 宣明한 것인 것은 勿論일 것이며 그것이 菩薩 (大人) 인 以上에는 受戒에 對하여 도 佛正意를 服膺하야 證得할 것임은 勿論典에 記載하여 잇습니다. 또 佛正意로서 는 戒相을 建立하지 안 으면 안 된다. 그럼으로 小乘의 (小人的) 形式을 具備하야 大乘菩薩 (出家菩薩이나 在家菩薩이나) 의 戒壇을 建立하지 안 으면 안 된다. 我東邦大乘菩薩化現國의 列祖의 게는 조공도 업섯습니다. 이것이 眞으로 獨創의 佛陀를 차지한 菩薩이라 할 由을 示합니다. 이것을 戒脈의 精髓가 「신실하고」 「양친하고」 「부모」 「알음」 한 「確乎不拔한 우리 朝鮮佛敎의 眞髓」

朝鮮民衆의 指導原理인 것이라 함이다. 世界民衆의 指導原理인 것이 될 수 있다. 形式的 (小人的) 으로 三和尙 七證師를 加하지 안 코 佛正意의 信心受戒한 慈藏의 建立한 通度寺戒壇이나 (戒師曼殊) 眞表의 建立에 關한 金山寺戒壇과 그 流를 바든 俗離戒壇 (戒師彌勒) 이나 大隱의 力作에 關한 七佛戒壇 (戒師?) 것은 正意의 正風派는 다 一形式을 脫離한 大乘菩薩의 正風을 傳하는 것이라 할 것이오며 이와 正反對方向에서 戒體를 金剛한 元曉 浮雲 眞默等 諸家와 戒壇以外의 戒體를 證得한 碧眼龍象大德들은 도 何無戒戒壇以外의 戒壇인 佛正風의 正意派를 作한 것이라 할 것이며 그 自證으로 나 온 信念의 高함이 無戒 (無戒行) 라도 般若에는 無妨이라 三信仰의 旗幟를 宣布한 것은 普賢行願의 開遮가 徵象된 것이라 함이다. 以上으로 正宗分이라 하였을 지름이다.

註(8) 暫時梵網經經義新學戒第二十三 「若佛子 佛滅度後 欲以好心 受菩薩戒時 於佛菩薩形像前 自誓受戒 當以七日 佛前 懺悔 得見好相 便得戒 若不得好相應 二七三七乃至一年 要得好相 得好相已 便得佛菩薩形像前 受戒 若不得好相 雖佛前受戒 不得戒 若先受菩薩戒 師前受戒時 不須要見好相 何以故 是法師、師相授故 不須好相 是以法師前受戒時 即得戒 以生至 重心 故 便得戒 若千里內 無能授戒 師得佛菩薩形像前 自誓受戒 而要見好相 若法師自倚解經律 大乘學戒 與國王太子 百官 以爲善友 而新學菩薩來問 若經義律 義輕心慢 心不一 好答問者 犯輕垢罪」 「好相은 瑞相이니 宗教의 自信々念의 證體」 이라 함이다.

(9) 權相老師 (退耕) 『所論인 朝鮮에서 自立한 宗派의 其三』 『朝鮮의 律宗 (佛敎第五十六號四頁—九頁) 參照』

(10) 權相老師 前引書 九頁—十一頁 參照。

(11) 同書 十三頁—十四頁 參照。

予는 本邦戒壇에 對한 또는 戒脈에 對하여 細心注意로 하엿섯습니다. 그러나 明答案을 엇지 못하엿스나 暗々히라도 慈藏의 設壇과 眞表圓光法師의 戒匠인 것과 大隱和尙의 戒壇의 建設을 계오알고 予는 이를 通度寺戒壇 金山寺 또는 俗離戒壇 七佛戒壇이라 불너왔습이다. 이 如次에 相老退耕師의 明論으로 疑雲을 一掃한 것은 참으로 同師에 對하여 滿腔의 敬意를 表하는 바이오며 同時에 後學의 予로서 敢히 一苦言을 告하오면 七佛戒壇의 創建始祖의 年代와 應相戒師

의 불명함은 璧玉玳瑁의 賦을 消蕩케 하여 지이다。敢히 苦言으로!

流通分에 들어서 나는 내 自身이 戒에 對한 率直한 告白을 與주려는 것이 言論을 爲하야, 뜻을 盡케 한 것임을 表白하
고 지하며 또한 願하였습이다。

그러하오나 諸佛 諸法 諸佛을 瞻見하는 直覺性이 至鈍한 乎로서는 投寫(描寫) 畫法을 理解 못하고 修養 못한 다
맛 觀察한 藝術家가 自興에 못이거지 描寫한 作品이 그 藝術家 自身이 觀賞한 것과는 全然히 風致를 異한 作品인 것과
것사와 (端正한 眞을 보고 그린 作品이 그 柱棟其他 構造의 不調和로서 畫中家屋의 엇비척이 어물어칠 것 같으며, 또는
判然히 다른 眞이 되며서 元來說明을 不要로 寫繪畫의 藝術의 性質이 안맞는 一々의 說明을 要할 것 처럼) 尺을 度려 寫되
이 는바 이 眞을 告白함이다。 그러하오나 予는 予 自身의 信念 生涯에서 投影된 景物이면 粗雜한 風景이나 마 日新又日
新으로 佛戒內에서 遊戲할 것 임을 誠視하며, 持犯如何間에 一佛名, 一法句, 一法偈의 見聞相通한 것이며 또 惡녀 惡
行 惡友의 逆境 教示로 바든 一動機가 金剛不壞의 戒體가 되어 悔이나 지 悔어나 질 質根이 된 것이며 또한 佛陀의 게서도
佛身 元來 無背相, 十方來衆 皆對面으로 게 실 것임으로 엇지 못하시고 予輩 愚生을 廣大한 慈光속 에 안어 주실 것을 敬信
하이다。 그러하오나 吾人은 愚鈍의 極이라도 威踏 虛虛頂顛, 行拜 童子 足下의 生活이 所願됨이다。 上求菩提, 下濟衆苦
和南 諸佛 [終]

〔2〕三月東京惠日山止觀道場에서

唯法的立場에서 본 我的省察 (序稿)

許 永 鎬

Cogito ergo sum

미카 에르무그 그의 「方法敘說」(discours De la methode)에서 모든 것을 다 삼에 나라는 幻想과 가처 아무 眞
理도 가진 것이 아니라 는 것으로 假想한 結果 그러나 이 「나」가 모든 것을 虛偽라고 생각하는 동안 이리케 생
각하는 「나」그것은 아무래도 疑心할 수가 없다 하였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니까 나는 있다」(Je pense
donc Je suis) 라는 것을 確固하고 明確한 것으로 엇더한 懷疑論者라도 또 엇더한 煩瑣辯論한 想定으로서라도 이
것은 動搖의 疑心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나는 있다」 모든 것을 다 疑心하더라도 疑心하는 그 「나」의 存在는 疑心할 수 없다。 生覺하는 그 「나」의
存在는 疑心할 수 없다。 그런 疑心의 Cogito ergo sum 이다 하였다。

이리케 나는 있는 것이 確實한 것이냐? 내가 生覺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生覺하리라는 先入見이 있는 때문
에 生覺하는 그 主體를 나라고 한 것이 아니냐?抑 나라는 主體가 있느냐? 生覺하는 것이냐? 生覺한다는 것을
잡아서 보니 나라는 主體가 있는 것으로 推想假定한 것이 아니냐? 卽내가 生覺하니 生覺는 그나 가 있는 것
이 아니라 生覺하니 그것을 나라고 稱呼한 것이 아니냐? 나로 말하랴면 對象化되지 않는 「나」를 對象化시켜서
「나」라고 妄執한 偏見이 아니냐? 내가 生覺한다고 무엇이 證明하며 審判하느냐? 必竟 나라는 그 自身이
亦是 證明하고 審判하는 것이 아니냐?

왜 生覺하는 것이 아니냐? 나라는 主體가 生覺하리라 生覺하니 生覺하는 것이 아니냐! 生覺한다
면 生覺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生覺한다고 突飛한 論理를 連絡시키느냐? 卽 내가 生覺한다고. 그래도